

1. 선사인(先史人)의 집 1번지 어음동굴(於音洞窟)²⁾

- ◎ 도내(道內) 최고(最古)의 선사(先史) 문화 유적
- ◎ 동굴 연대(年代) 추정엔 아직도 이견(異見)
- ◎ 유물(遺物)은 발굴현장 · 지역에 보존돼야
- ◎ 굴 깊숙이엔 ‘4·3’ 상흔(傷痕)이

1973년은 제주도의 문화사상 일찍이 없던 충격의 해였다. 북제주군(北濟州郡) 애월읍(涯月邑) 어음리(於音里) 동굴(속칭 빌레못굴)에서 뜻밖에 구석기 유적이 발견 보고 되었기 때문이었다.

“어음굴(於音窟)에 고양이가 들어가면 한림(翰林) 협재(挾才)에서 나온다.”는 전설과 함께 누구도 끝을 본 사람이 없는 긴 굴이 있다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이 일찍부터 알고 있는 터였지만 이 굴이 선사인(先史人)의 주거지였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다.

그해 3월 몇 사람의 답사가 있었고 5월과 7월에는 문화재(文化財) 당국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동굴 입구에서 약 1.5km(최근의 조사에

2) 『한라일보』 창간호 (1989. 04. 22).



14·3 사건을 피하여 마을 사람들이 동굴 생활을 했던 자취가 지금도 생생하다. 왼쪽으로 화덕자리가 그대로 있고 많은 용기 조각들을 볼 수 있다.

서는 약 9백m로 보고) 들어간 지점에서 큰곰(Brown bear, *Ursus arctos*), 붉은 사슴(Red deer), 노루(Roe deer) 등의 뼈 화석(化石)과 함께 찌개·박편·도끼·괭개·칼 등 석기(石器) 조각 1백여 점을 수집했다. 당시 이 조사 팀에 참가했던 김원룡(金元龍), 정영화(鄭永和) 교수 등은 이 유적이 적어도 7~8만 년 전인 중기(中期) 구석기(舊石器) 유적으로 추정 보고했다.

제주도(濟州島) 일번지(一番地)

이때까지 제주도에서는 고인돌 선사총(先史塚), 석기(石器), 토기(土器) 등 수많은 선사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지만 그것은 신석기(新石器) 이후 청동기(靑銅器) 시대에 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유적의 발견으로 어음리 빌레못 동굴이야말로 제주도 최고(最古)



빌레못 동굴(洞窟) 유적도(遺蹟圖)

최초(最初)의 선사인(先史人)이 살았던 주거지라고 할 것이다. 지번(地番)으로 따진다면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2리 1391번지가 되겠지만 문화사(文化史)의 위치에서 본다면 단연 제주도 1번지라고 할 것이다.

빌레못은 제주 서부지역에서 가장 오지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어음2리에서 동남쪽으로 약 1천 4백m 들어간 곳에 있으며 둘레가 약 50m쯤 팬 조그만 못이다.

동굴 입구는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약 70m쯤 떨어진 곳이었다. 굴 동쪽으로는 해송(海松)이 숲을 이루고 활엽수가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다.

동굴은 입구로부터 서북쪽으로 마치 사슴뿔처럼 수많은 가지 굴을 이루며 길쭉이 뻗어가 있었다. 총연장은 11.749km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한 가닥으로 뻗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새끼줄처럼 꼬였다가 풀리고 풀렸다가 다시 꼬이며 그것도 이중 삼중으로 대도(隙道)를 이루고 있었다.

며칠 전 필자가 이 동굴을 답사할 때는 굴 사정을 아는 안내인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혼자 길이었다면 도무지 찾아 나올 수가 없었을

것 같았다. 굴내는 홍수 때 쏟아져 들어왔다는 물로 천년 묵었는지 만년 묵었는지 모를 먼지가 반죽이 되어 진흙을 이룬 곳이 많았다. 굴속에는 천정이 낮아 강아지가 간신히 기어 나올 만한 곳이 많았는데 필자가 다닌 곳에서만도 예닐곱 곳이나 산재(散在)해 있었다. 다행히 헬멧을 빌려 썼기 때문에 무수한 석순(石筍)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할 수는 있었지만 천년 묵은 진흙물로 온 몸이 엉망이 되어 나왔다.

유물은 도외(島外)로

큰곰과 그 밖의 동물뼈 화석 등이 수집되었다는 제1문화층에서나 석기가 수집되었다는 제2문화층에서는 이미 듣고 예상했던 것처럼 아무런 유물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 수집된 여러 종류의 유물은 고스란히 정영화 교수가 가지고 가서 지금 그가 적을 둔 영남대학교(嶺南大學校) 박물관(博物館)에 소장하고 있다.

이 구석기 유물은 그동안 수만 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이 동굴에서 고이 보존돼온 점을 생각할 때 그대로 유적현장에 보존시켜 소중한 구석기 문화자원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었고 그게 불가능했다면 제주도립박물관이나 제대(濟大)박물관에 보관하는 게 옳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본다. 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관계 요로와 지상을 통해서 이 유물이 다시 제주도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제의한 일이 있지만 큰곰의 뼈화석 몇 점만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내주어 눈가림하고 아예 외면해버리고 있다.

더구나 처음 발견했을 때의 얘기를 들어보면 큰곰의 경우는 해체된 뼈가 아니라 낙반(落盤)으로 입구가 막혀 아사(餓死)한 것으로 추측되는

곰이어서 골체(骨體)가 고스란히 있었다고 한다. 이것을 재현은 못했을 망정 최소한 기록 보존만이라도 해놓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지워 버릴 수가 없다.

비극(悲劇)의 현장

이 동굴 유적의 편년(編年)에 있어서는 아직도 학자에 따라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있다. 김원룡 교수는 6~7만 년 전, 정영화 교수는 7~8만 년 전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 일본의 저명한 고고학자(考古學者) 에사까(江坂輝彌) 교수는 2~3만 년 전으로 보고 있다.

필자는 이번 답사에서 선사유적과는 별개로 제주도민의 한 맺힌 비극의 현장을 보았다. 동굴 입구에서 불과 40~50m 들어간 지점에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화덕자리, 목탄, 나무들, 숯을 엮었던 것으로 보이는 돌, 숯 조각, 극도로 부식된 칼 조각, 등피 조각 그리고 수많은 사기그릇 유리그릇 쪼가리 등 우리들이 어릴 적 어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생활도구들의 찌꺼기였다. 이런 흔적은 3백에서 4백m 들어간 곳까지 서너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다.

필자와 함께 동행 했던 김군배(金君培)씨(제주도용암동굴협회 회원)의 말에 따르면 그는 1973년경 작고한 산악인(山岳人) 송성권(宋聖權)씨 등과 함께 이 굴을 답사했는데 그때 굴내 여러 곳에서 수십 구의 인체 유골을 보았다고 했다. 그 가운데는 한 가족으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의 유골이 2~3m 거리를 두고 있었고 어린이 유골도 있었다고 했다. 이



! 구석기 문화 유적 현장을 답사하고 있는 필자 일행 ! 그 자리에 유물은 이미 없어지고 쓸렁한 빈터만 기다리고 있었다.

유골들은 최근 마을 사람들이 모여 들어 매장하였다고 한다. 필자는 실지 그 현장을 살펴보았는데 흘린 땀 부스러기와 시신이 놓여 있었던 자국, 그리고 유기체가 썩어서 물든 부식토 등을 볼 수 있어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시련의 속죄양(贖罪羊)

무기가 있었던 흔적이 없고 더구나 어린이까지 있었던 점을 볼 때 빨치산들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4·3 사건 때 빨치산 보다는 토벌대들을 피하여 이곳에 숨어 살았던 선량한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이 킁킁한 동굴에서 먹을 것도 없고 지원의 손길도 없는 막막

한 나날을 허기와 고독과 싸우다 지쳐 마침내 굶주려 죽었거나 자결하여 죽은 사람들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들은 마을에서 수많은 이웃들이 무참히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이미 돌아갈 마을이나 집마저 없어졌을지 모를 그런 절망 속에서 식구들만이라도 흠어지지 않고 함께 죽고 싶었으리라고 생각해 보았다. 얼마나 한(恨) 맺힌 최후였을까. 이들의 원혼(怨魂)은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

수만 년 전 제주도가 섬이 되기 훨씬 이전에 시베리아의 큰곰이 내려와 살았고 아직 문명(文明)이 덜 낀 선사시대(先史時代)에 구석기인(舊石器人)이 살았던 이 동굴에 제주도의 역사상 미증유(未曾有)의 난리였던 4·3 사건 때는 어디에도 붙지 못하고 버림받은 외로운 사람들이 살다가 결국 죽어간 이 저주받은 현장, 빌레못굴. 이 땅에 내려진 가혹한 역사의 시련에 속죄양(贖罪羊)이 되어 죽어간 순박한 사람들.

영겁(永劫) 속의 침묵

그들이 누구였는지 모른다. 추적해보면 그들 모두에게는 남모를 많은 사연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시신과 함께 그 많은 이야기들도 이 굴에 영원히 묻어 버렸다.

이 다음 시대에 또 어떤 시련이 이 동굴에 내릴지 그것은 누구도 모른다. 그 어느 때건 동굴은 침묵한 채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만 년의 세상사를 지켜본 빌레못 동굴은 신비(神秘)한 생명력(生命力)을 간직하고 영원히 흐를 것이다.